

어떤 수행법을 고를까?

국내 위빠사나 다양·전문화

가장 집중수행을 실시하고 있다.

대승 관법

동체대비의 보살행 지향

남방 위빠사나에 대승불교의 관법을 가미한 대승 위빠사나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보편 사리자다>(정신세계사) <깨달음으로 가는 오직 한길>(선재) 등의 저서로 국내 위빠사나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열원 법사는 4년째 위빠사나에 용수보살의 중도관(中道觀), 원효스님의 자성(自性) 진여관, 천태지자 대사의 지관(止觀), 세친스님의 유식관(唯識觀) 등을 접목시켜 지도하고 있다. 한국 위빠사나의 원형을 원효사상에 찾는 김 법사는 "남방"

꾸준한 법회참석 1천여명

현지에서 배워온 수행자 증중

위빠사나가 아비달마의 아공법유(阿公法有)와 입감 연기에 근거해 일선의 열반에 머무는데 반해, 원효의 대승 관법은 일선의 진여에 의지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금강심지(金剛心地)에 머물면서 동체대비의 보살행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나파나사티 수행

들숨날숨 통해 마음챙김

아나파나사티(Anapanasati, 입출식념) 즉, 호흡관은 모든 남·북방 불교 수행법의 기본이다. 들숨과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혹은 마음챙김(sati)이라는 뜻으로, 한문으로는 '入出息念'이라 한다. 한역으로는 '안번수의(安般守意)'라고 번역되는 아나파나사티 수행에서는 특별한 기교나 방법은 없고, 들어가는 숨과 나오는 숨을 관찰함으로써 마음챙김을 개발하도록 한다. 서울 연방출선원(02-334-1763)에서 강조하는 수행법이다.

김재경 기자

남방불교의 위빠사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87년 개해 스님의 안내로 미얀마의 우벤디타스님이 그의 스승 마하시(1904-1982) 스님이 체계화한 위빠사나 수행법을 한국에 소개하면서부터다. 위빠사나는 이직 보급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동남아에서 비구계를 받거나 수행법을 익히고 돌아온 스님과 불자들이 지난 10여년 사이에 선원이나 명상센터를 잇달아 개설, 현재 수행기관만 20여 곳에 이른다. 최근 보리수선원, 여래선원, 연방출선원, 천안 호두마을, 김해 다보선원 등에서 위빠사나 수행법으로 정진한 불자는 2천여명, 매주 한 차례 이상 정기법회에 참석하는 수행자만도 1천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위빠사나 선원은 대부분 마하시 전통의 위빠사나를 도입해 다양한 위빠사나 수행법을 접할 통로가 차단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마하시 전통은 지도하기 쉽고 단기간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명칭 붙이기' 등으로 인한 시기별 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런 가운데 2-3년전부터 미얀마 순례 스님의 감각 관찰 위빠사나, 세우민 스님의 마음관찰 위빠사나, 태국의 아짚담마다로의 기공 위빠사나, 아짚문의 만트라 위빠사나 등 다양한 수행법을 현지에서 배워온 수행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위빠사나가 더욱 전문화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위빠사나 수행법을 소개한다.



◇고엔카위빠사나에 중반·회양상을 기미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명상관법' 정진 모습.

'일어난 마음', '일어날 마음'으로 구분하고 알아차릴 것을 주문한다.

고엔카 위빠사나

호흡관후 감각 관찰

인도의 고엔카 법사는 미얀마의 레디 사야도(1846-1923) 계통의 수행법을 전승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호흡을 관찰하는 입출식념(入出息念)을 수행하며, 이에 의해서 마음의 집중

을 얻은 후에 감각(vedana)을 관찰하도록 한다. 즉 신, 수, 심, 법 사념처를 다 무시 않고, 신념처의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入出息念)을 준비수행으로 닦은 뒤, '감각에 대한 관찰'(受念處)을 본 수행으로 닦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각을 관찰하여 고(苦)의 원인인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고통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게 목표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www.sgsb.ac.kr) 황동식 교수(명상치료학과)와 '한국 비파사나센터 준비위원회'(cafe.daum.net/dhmmakorea)

마하시 위빠사나

배움직임 관찰, 경행 병행

마하시 선사자 가르친 수행법은 좌선시에 배움의 움직임을 주로 관찰하고 걷는 수행인 경행을 병행하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무상, 고, 무아의 진실을 보게 되며 정신과 육체의 자연적인 과정을 수행자 스스로 체험하도록 이끄는 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좌선할 때 호흡에 동반되어 생기는 복부의 움직임을 일차적인 '마음 챙김'의 대상으로 삼는다. 배가 불러오면 '일어남', 배가 끼지면 '내려감' 하고 명칭을 붙이며 대상의 생겨남과 지속함과 소멸하는 과정 전부를 철저히 주시하는 것이다.

2~3년 사이 선원, 명상센터 늘어

현재 수행기관만 20여곳

서울 보리수선원(02-517-2841), 천안 호두마을(041-567-2841)이 대표적인 수행처다.

마음 알아차리는 수행

평등심 유지, 욕망·성냄 제거

이 수행은 미얀마의 세우민 위빠사나 센터(Shwe Oomin Dhamma Sukha Tawya)에서 가르치는 '마음 관찰' 위주의 수행법이다. 모든 행동과 좌선시에 가슴에서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주로 관찰한다. 특히 무엇을 하든 평등심을 유지하면서 욕망과 성냄을 제거하게 한다. 서울 강남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동산불교대학 등에서 수행을 지도하는 모원 법사(vipassana.buddhism.org)는 신(身, 몸의 움직임), 수(受, 감각), 심(心, 마음의 움직임), 법(法, 생각의 대상) 등 사념처(四念處) 수행을 차례대로 지도하면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심념처(心念處) 수행으로 나아가게 한다. "마음은 직관으로 보아야만 보인다"고 강조하는 모원 법사는 수행자가 보는(아는) 마음을 '있는 마음',

내 부모님을 따라 등을 떠닫 그 불교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불교를 알고자 했고, 소설을 읽어오 불교와 관련되는 책을 골라서 읽었다. 이 일도 결혼을 하면서 시도해졌다. 내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직장 동료들은 나를 정열의 여인이라고 했다. 나에게 흥미를 준 그 어떤 것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반드시 정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결혼생활은 그러하지 못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던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고, 교직생활도 대충 그랬다. 결혼생활도 그럴 줄 알았는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던 나의 눈에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종교를 찾았다. 직장 동료들은 나를 증산도장으로, 교회로 데리고 다녔다. 양호 교사였던 한 동료는 김정빈씨가 정리한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의 법문집 <無>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계속)

여래선원, 미얀마에 천축사 건립

비구, 비구니 스님 각9명씩 방부

미얀마에 한국 사찰이 처음으로 설립됐다. 대구 여래선원(선원장 법산, www.buddhapi.a.co)은 최근 미얀마 종교성의 후원과 재가 신도의 보시로 양곤 시내 숲속에 천축사(8,617평)와 붓다피어 월드(2,781평, 재가자

수행처)를 설립하고 올 동안거부터 수행할 조계종 비구스님(9명)과 재가자(15명)의 방부를 받고 있다. 여래선원은 스님들에 대해서는 왕복 항공료와 의식주 등 일체편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재가자들에게 대해서는 항공료만 자비로 부담하되, 정진 중의 모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구니 선방이 완공되는 내년부터는 비구니 스님도 방부를 받아 조계종 비구·비구니 스

“수행 현지에서 배운다”

리얼라이즈 수행일기 <上>



이미자

서울 화계중 교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고교동창생 순옥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학교생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로 지난 1학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그래서 그만두 위장병까지 얻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며 내가 하고 있는 위빠사나를 자기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만에 사운회를 하면서 다

어졌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말할 수가 없었다. 법에 목말라 헤매던 그 동안의 시간이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학생 시절 나는 학교에서 부모님의 종교를 물으면 '불교'에 눈 손을 들었고, 부처님오신 날에는 부모님을 따라 집에 가서 뜻 모르는 등을 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거의 교회에서 보냈다. 고3 입시를 계기로 교회에 발을 끊으면서 대학시절은 비교적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82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연스레 교사가 되었고, 학생들아 도서실에 기증한 책 속에서 지금은 책의 내용이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남지심씨의 <우담바라>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책 속에서 만난 불교

는 내 부모님을 따라 등을 떠닫 그 불교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불교를 알고자 했고, 소설을 읽어오 불교와 관련되는 책을 골라서 읽었다. 이 일도 결혼을 하면서 시도해졌다.

내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직장 동료들은 나를 정열의 여인이라고 했다. 나에게 흥미를 준 그 어떤 것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반드시 정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결혼생활은 그러하지 못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던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고, 교직생활도 대충 그랬다. 결혼생활도 그럴 줄 알았는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던 나의 눈에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종교를 찾았다. 직장 동료들은 나를 증산도장으로, 교회로 데리고 다녔다. 양호 교사였던 한 동료는 김정빈씨가 정리한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의 법문집 <無>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계속)

그런 나를 남편은 친정의 어른들에게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고 전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

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말할 수가 없었다. 법에 목말라 헤매던 그 동안의 시간이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학생 시절 나는 학교에서 부모님의 종교를 물으면 '불교'에 눈 손을 들었고, 부처님오신 날에는 부모님을 따라 집에 가서 뜻 모르는 등을 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거의 교회에서 보냈다. 고3 입시를 계기로 교회에 발을 끊으면서 대학시절은 비교적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82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연스레 교사가 되었고, 학생들아 도서실에 기증한 책 속에서 지금은 책의 내용이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남지심씨의 <우담바라>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책 속에서 만난 불교

는 내 부모님을 따라 등을 떠닫 그 불교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불교를 알고자 했고, 소설을 읽어오 불교와 관련되는 책을 골라서 읽었다. 이 일도 결혼을 하면서 시도해졌다.

내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직장 동료들은 나를 정열의 여인이라고 했다. 나에게 흥미를 준 그 어떤 것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반드시 정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결혼생활은 그러하지 못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던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고, 교직생활도 대충 그랬다. 결혼생활도 그럴 줄 알았는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던 나의 눈에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종교를 찾았다. 직장 동료들은 나를 증산도장으로, 교회로 데리고 다녔다. 양호 교사였던 한 동료는 김정빈씨가 정리한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의 법문집 <無>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계속)

그런 나를 남편은 친정의 어른들에게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고 전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

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말할 수가 없었다. 법에 목말라 헤매던 그 동안의 시간이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학생 시절 나는 학교에서 부모님의 종교를 물으면 '불교'에 눈 손을 들었고, 부처님오신 날에는 부모님을 따라 집에 가서 뜻 모르는 등을 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거의 교회에서 보냈다. 고3 입시를 계기로 교회에 발을 끊으면서 대학시절은 비교적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82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연스레 교사가 되었고, 학생들아 도서실에 기증한 책 속에서 지금은 책의 내용이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남지심씨의 <우담바라>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책 속에서 만난 불교

는 내 부모님을 따라 등을 떠닫 그 불교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불교를 알고자 했고, 소설을 읽어오 불교와 관련되는 책을 골라서 읽었다. 이 일도 결혼을 하면서 시도해졌다.

<우담바라> 책 통해 또다른 불교 접해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에 출가 계획도

시 만났고, 더불어 소규모로 동창모임을 만들어서 매년 1월에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만사를 제쳐두고 만나고 있다.

그 모임의 첫 만남에서 중학교 영어교사인 인숙이는 작은 소책자를 누워있는 우리를 머리맡에 한 권씩 놓아두면서 읽어보라고 했다. 위빠사나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지금은 남편에 의해 짝이 없어진 그 책의 표지에는 '수행 방법'이라는 제목이, 첫 장을 넘기면서부터는 '위빠사나'라는 생소한 단어가 들어있었다. 빨려들 듯 그 책을 단숨에 읽어 버린 나는 인터넷을 이 잡듯 뒤졌고, 바로 전 해에 태국 여행길에서 보았던 붉은 가사를 연상시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나는 비로소 근본불교를 처음 만난 것이다.

다이어는 선원을 찾았다. 그러한 나를 남편은 친정의 어른들에게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고 전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

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말할 수가 없었다. 법에 목말라 헤매던 그 동안의 시간이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학생 시절 나는 학교에서 부모님의 종교를 물으면 '불교'에 눈 손을 들었고, 부처님오신 날에는 부모님을 따라 집에 가서 뜻 모르는 등을 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거의 교회에서 보냈다. 고3 입시를 계기로 교회에 발을 끊으면서 대학시절은 비교적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82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연스레 교사가 되었고, 학생들아 도서실에 기증한 책 속에서 지금은 책의 내용이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남지심씨의 <우담바라>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책 속에서 만난 불교

는 내 부모님을 따라 등을 떠닫 그 불교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불교를 알고자 했고, 소설을 읽어오 불교와 관련되는 책을 골라서 읽었다. 이 일도 결혼을 하면서 시도해졌다.

내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직장 동료들은 나를 정열의 여인이라고 했다. 나에게 흥미를 준 그 어떤 것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반드시 정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결혼생활은 그러하지 못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던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고, 교직생활도 대충 그랬다. 결혼생활도 그럴 줄 알았는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던 나의 눈에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종교를 찾았다. 직장 동료들은 나를 증산도장으로, 교회로 데리고 다녔다. 양호 교사였던 한 동료는 김정빈씨가 정리한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의 법문집 <無>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계속)

그런 나를 남편은 친정의 어른들에게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고 전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

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말할 수가 없었다. 법에 목말라 헤매던 그 동안의 시간이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학생 시절 나는 학교에서 부모님의 종교를 물으면 '불교'에 눈 손을 들었고, 부처님오신 날에는 부모님을 따라 집에 가서 뜻 모르는 등을 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거의 교회에서 보냈다. 고3 입시를 계기로 교회에 발을 끊으면서 대학시절은 비교적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82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연스레 교사가 되었고, 학생들아 도서실에 기증한 책 속에서 지금은 책의 내용이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남지심씨의 <우담바라>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책 속에서 만난 불교

는 내 부모님을 따라 등을 떠닫 그 불교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불교를 알고자 했고, 소설을 읽어오 불교와 관련되는 책을 골라서 읽었다. 이 일도 결혼을 하면서 시도해졌다.

내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직장 동료들은 나를 정열의 여인이라고 했다. 나에게 흥미를 준 그 어떤 것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반드시 정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결혼생활은 그러하지 못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던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고, 교직생활도 대충 그랬다. 결혼생활도 그럴 줄 알았는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던 나의 눈에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종교를 찾았다. 직장 동료들은 나를 증산도장으로, 교회로 데리고 다녔다. 양호 교사였던 한 동료는 김정빈씨가 정리한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의 법문집 <無>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계속)

그런 나를 남편은 친정의 어른들에게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고 전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

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말할 수가 없었다. 법에 목말라 헤매던 그 동안의 시간이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학생 시절 나는 학교에서 부모님의 종교를 물으면 '불교'에 눈 손을 들었고, 부처님오신 날에는 부모님을 따라 집에 가서 뜻 모르는 등을 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거의 교회에서 보냈다. 고3 입시를 계기로 교회에 발을 끊으면서 대학시절은 비교적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82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연스레 교사가 되었고, 학생들아 도서실에 기증한 책 속에서 지금은 책의 내용이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남지심씨의 <우담바라>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책 속에서 만난 불교

는 내 부모님을 따라 등을 떠닫 그 불교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불교를 알고자 했고, 소설을 읽어오 불교와 관련되는 책을 골라서 읽었다. 이 일도 결혼을 하면서 시도해졌다.

내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직장 동료들은 나를 정열의 여인이라고 했다. 나에게 흥미를 준 그 어떤 것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반드시 정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결혼생활은 그러하지 못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던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고, 교직생활도 대충 그랬다. 결혼생활도 그럴 줄 알았는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던 나의 눈에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종교를 찾았다. 직장 동료들은 나를 증산도장으로, 교회로 데리고 다녔다. 양호 교사였던 한 동료는 김정빈씨가 정리한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의 법문집 <無>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계속)

그런 나를 남편은 친정의 어른들에게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고 전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

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말할 수가 없었다. 법에 목말라 헤매던 그 동안의 시간이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학생 시절 나는 학교에서 부모님의 종교를 물으면 '불교'에 눈 손을 들었고, 부처님오신 날에는 부모님을 따라 집에 가서 뜻 모르는 등을 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거의 교회에서 보냈다. 고3 입시를 계기로 교회에 발을 끊으면서 대학시절은 비교적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82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연스레 교사가 되었고, 학생들아 도서실에 기증한 책 속에서 지금은 책의 내용이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남지심씨의 <우담바라>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책 속에서 만난 불교

는 내 부모님을 따라 등을 떠닫 그 불교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불교를 알고자 했고, 소설을 읽어오 불교와 관련되는 책을 골라서 읽었다. 이 일도 결혼을 하면서 시도해졌다.

내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직장 동료들은 나를 정열의 여인이라고 했다. 나에게 흥미를 준 그 어떤 것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반드시 정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결혼생활은 그러하지 못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던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고, 교직생활도 대충 그랬다. 결혼생활도 그럴 줄 알았는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던 나의 눈에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종교를 찾았다. 직장 동료들은 나를 증산도장으로, 교회로 데리고 다녔다. 양호 교사였던 한 동료는 김정빈씨가 정리한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의 법문집 <無>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계속)

그런 나를 남편은 친정의 어른들에게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고 전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

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말할 수가 없었다. 법에 목말라 헤매던 그 동안의 시간이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학생 시절 나는 학교에서 부모님의 종교를 물으면 '불교'에 눈 손을 들었고, 부처님오신 날에는 부모님을 따라 집에 가서 뜻 모르는 등을 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거의 교회에서 보냈다. 고3 입시를 계기로 교회에 발을 끊으면서 대학시절은 비교적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82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연스레 교사가 되었고, 학생들아 도서실에 기증한 책 속에서 지금은 책의 내용이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남지심씨의 <우담바라>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책 속에서 만난 불교

는 내 부모님을 따라 등을 떠닫 그 불교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불교를 알고자 했고, 소설을 읽어오 불교와 관련되는 책을 골라서 읽었다. 이 일도 결혼을 하면서 시도해졌다.

내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직장 동료들은 나를 정열의 여인이라고 했다. 나에게 흥미를 준 그 어떤 것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반드시 정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결혼생활은 그러하지 못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던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고, 교직생활도 대충 그랬다. 결혼생활도 그럴 줄 알았는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던 나의 눈에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종교를 찾았다. 직장 동료들은 나를 증산도장으로, 교회로 데리고 다녔다. 양호 교사였던 한 동료는 김정빈씨가 정리한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의 법문집 <無>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계속)

그런 나를 남편은 친정의 어른들에게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고 전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

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말할 수가 없었다. 법에 목말라 헤매던 그 동안의 시간이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학생 시절 나는 학교에서 부모님의 종교를 물으면 '불교'에 눈 손을 들었고, 부처님오신 날에는 부모님을 따라 집에 가서 뜻 모르는 등을 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거의 교회에서 보냈다. 고3 입시를 계기로 교회에 발을 끊으면서 대학시절은 비교적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82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연스레 교사가 되었고, 학생들아 도서실에 기증한 책 속에서 지금은 책의 내용이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남지심씨의 <우담바라>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책 속에서 만난 불교

는 내 부모님을 따라 등을 떠닫 그 불교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불교를 알고자 했고, 소설을 읽어오 불교와 관련되는 책을 골라서 읽었다. 이 일도 결혼을 하면서 시도해졌다.

내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직장 동료들은 나를 정열의 여인이라고 했다. 나에게 흥미를 준 그 어떤 것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반드시 정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결혼생활은 그러하지 못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던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고, 교직생활도 대충 그랬다. 결혼생활도 그럴 줄 알았는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던 나의 눈에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종교를 찾았다. 직장 동료들은 나를 증산도장으로, 교회로 데리고 다녔다. 양호 교사였던 한 동료는 김정빈씨가 정리한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의 법문집 <無>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계속)

그런 나를 남편은 친정의 어른들에게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고 전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

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말할 수가 없었다. 법에 목말라 헤매던 그 동안의 시간이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학생 시절 나는 학교에서 부모님의 종교를 물으면 '불교'에 눈 손을 들었고, 부처님오신 날에는 부모님을 따라 집에 가서 뜻 모르는 등을 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거의 교회에서 보냈다. 고3 입시를 계기로 교회에 발을 끊으면서 대학시절은 비교적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82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연스레 교사가 되었고, 학생들아 도서실에 기증한 책 속에서 지금은 책의 내용이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남지심씨의 <우담바라>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책 속에서 만난 불교

는 내 부모님을 따라 등을 떠닫 그 불교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불교를 알고자 했고, 소설을 읽어오 불교와 관련되는 책을 골라서 읽었다. 이 일도 결혼을 하면서 시도해졌다.

내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직장 동료들은 나를 정열의 여인이라고 했다. 나에게 흥미를 준 그 어떤 것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반드시 정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결혼생활은 그러하지 못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던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고, 교직생활도 대충 그랬다. 결혼생활도 그럴 줄 알았는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던 나의 눈에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종교를 찾았다. 직장 동료들은 나를 증산도장으로, 교회로 데리고 다녔다. 양호 교사였던 한 동료는 김정빈씨가 정리한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의 법문집 <無>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계속)

그런 나를 남편은 친정의 어른들에게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고 전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

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말할 수가 없었다. 법에 목말라 헤매던 그 동안의 시간이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학생 시절 나는 학교에서 부모님의 종교를 물으면 '불교'에 눈 손을 들었고, 부처님오신 날에는 부모님을 따라 집에 가서 뜻 모르는 등을 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거의 교회에서 보냈다. 고3 입시를 계기로 교회에 발을 끊으면서 대학시절은 비교적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82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연스레 교사가 되었고, 학생들아 도서실에 기증한 책 속에서 지금은 책의 내용이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남지심씨의 <우담바라>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책 속에서 만난 불교

는 내 부모님을 따라 등을 떠닫 그 불교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불교를 알고자 했고, 소설을 읽어오 불교와 관련되는 책을 골라서 읽었다. 이 일도 결혼을 하면서 시도해졌다.

내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직장 동료들은 나를 정열의 여인이라고 했다. 나에게 흥미를 준 그 어떤 것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반드시 정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결혼생활은 그러하지 못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던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고, 교직생활도 대충 그랬다. 결혼생활도 그럴 줄 알았는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던 나의 눈에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종교를 찾았다. 직장 동료들은 나를 증산도장으로, 교회로 데리고 다녔다. 양호 교사였던 한 동료는 김정빈씨가 정리한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의 법문집 <無>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계속)

그런 나를 남편은 친정의 어른들에게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고 전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

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말할 수가 없었다. 법에 목말라 헤매던 그 동안의 시간이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학생 시절 나는 학교에서 부모님의 종교를 물으면 '불교'에 눈 손을 들었고, 부처님오신 날에는 부모님을 따라 집에 가서 뜻 모르는 등을 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거의 교회에서 보냈다. 고3 입시를 계기로 교회에 발을 끊으면서 대학시절은 비교적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82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연스레 교사가 되었고, 학생들아 도서실에 기증한 책 속에서 지금은 책의 내용이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남지심씨의 <우담바라>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책 속에서 만난 불교

는 내 부모님을 따라 등을 떠닫 그 불교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불교를 알고자 했고, 소설을 읽어오 불교와 관련되는 책을 골라서 읽었다. 이 일도 결혼을 하면서 시도해졌다.

내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직장 동료들은 나를 정열의 여인이라고 했다. 나에게 흥미를 준 그 어떤 것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반드시 정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의 결혼생활은 그러하지 못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던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있었고, 교직생활도 대충 그랬다. 결혼생활도 그럴 줄 알았는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던 나의 눈에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종교를 찾았다. 직장 동료들은 나를 증산도장으로, 교회로 데리고 다녔다. 양호 교사였던 한 동료는 김정빈씨가 정리한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의 법문집 <無>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계속)

그런 나를 남편은 친정의 어른들에게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고 전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

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말할 수가 없었다. 법에 목말라 헤매던 그 동안의 시간이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학생 시절 나는 학교에서 부모님의 종교를 물으면 '불교'에 눈 손을 들었고, 부처님오신 날에는 부모님을 따라 집에 가서 뜻 모르는 등을 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은 거의 교회에서 보냈다. 고3 입시를 계기로 교회에 발을 끊으면서 대학시절은 비교적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82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연스레 교사가 되었고, 학생들아 도서실에 기증한 책 속에서 지금은 책의 내용이 거의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남지심씨의 <우담바라>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책 속에서 만난 불교

는 내 부모님을 따라 등을 떠닫 그 불교가 아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불교를 알고자 했고, 소설을 읽어오 불교와 관련되는 책을 골라서 읽었다. 이 일도 결혼을 하면서 시도해졌다.

내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직장 동료들은 나를 정열의 여인이라고 했다. 나에게 흥미를 준 그 어떤 것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반드시 정복을 당했기